

| 가을날의 동토(冬土) 여행 I |

협회이사 권영관
(회원 NO.1223)

1. 철원평야

철원평야는 평강고원 아래 제송평야(일명 장흥평야)와 대야잠평을 합쳐 칭하고 넓이가 약 1억2천만 평에 년 간 쌀 생산량이 5만 6천 톤의 강원도 전체의 20%에 달하는 곡창지대이다. 역사적으로는 후삼국시대에 궁예가 이곳에 태봉국을 세웠고, 이 곳 금학산(표고 947.4m 학이 내려앉은 모양)을 진산으로 궁궐을 지으면 300년을 통치할 수 있고 북쪽에 고암산을 진산으로 궁궐을 지으면 30년 밖에 통치할 수 없다는 학설이 있었는데도 궁예는 고집을 부려 고암산을 진산으로 결정하였으며 국호를 고려라 하였으나 얼마 안가 멸망하고 왕건이 고려국 태조가 되면서 도읍을 송악(지금의 개성)으로 옮겼다 한다.

155마일 휴전선 중 43.6마일이 철원군에 해당되며 6·25 동란(1950.6.25 ~1953.7.27 휴전 협정 체결) 이전에는 북한 치하였으나 지금은 그 절반 이상의 곡창 지대가 남한 영토가 되었다. 이 밖에도 철원에는 한탄강이 중앙에 흐르고, 고석정(임꺽정의 정자 및 성곽), 직탕 폭포(폭 80여m, 높이 약 3m 일명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 부른다), 삼부연 폭포 등 명승지와 비경이 있으며 1945년 해방 이전에는 경원선(서울~원산)이 이곳을 지나며 금강산행 전기철도가 이곳에서 시발하여 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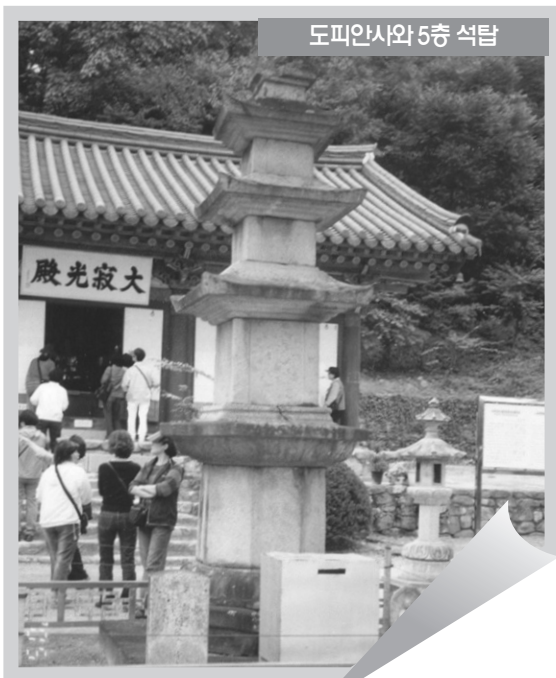
강까지 운행, 많은 내외국인들로부터 명승지로 각광을 받았고 구 철원 시가지 내에는 금융기관(지금의 새마을금고), 4곳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5곳, 농산물 검사소 2곳, 얼음 창고, 제사(방직)공장(그 당시 여공이 500여 명이나 되는 큰 공장)이 있었고 철원군청부지와 5만 평이나 되는 철원역(서울역 다음으로 역무원 수가 많았던 곳)이 있던 큰 도시였으나 지금은 철 기둥 하나만 서 있는 폐허로 변해 잡초만 무성하고나!



직탕폭포(한국의 나이아가라)

2. 도피안사(到彼岸寺)

철원군 동송면 관우리 450에 위치한 도피안사는 신라 경문왕 5년(856년) 도선국사가 철조(鐵造) 비로자나 불좌상을 제조하여 수정산 안양사로 봉안하기 위하여 승려들과 함께 암소 등에 싣고 먼 길을 가던 중 잠시 쉬었다 가려니 불상이 없어졌던 것이다. 승려들이 분산되어 찾으니 이 곳 도피안사 절터에 안좌 되어 있었다. 도선국사는 그 자리에 암자를 짓고 불상을 모셨다. 당시 불상이 피안(彼岸)에 도(到)착했다 하여 사명(寺名)을 도피안사로 명명하였으며 사찰이 6·25동란 중 소실되어 철 불상만 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 “땅 속에 불상이 답답하다”는 꿈을 꾸 이명재 장군(당시 15사단장)이 전방 시찰 중에 불에 탄 도피안사 절터에서 불상을 발견해 1956년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앞에 보물 제 223호로 지정된 5층 석탑은 높이 4.1m 방형 지대석 위에 8각의 2층 연꽃무늬가 새겨진 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탑신부는 일반형 석탑에서와 같이 방형으로 5층을 중적하였다. 이 석



축 2단과 3단 사이 돌 틈새에 금와(입언저리와 앞발이 금색인 개구리) 보살님이 존재한다. 이 금와 보살님은 일 년에 몇 번 안 보이는데 일행은 비로자나 불상의 축복을 받았는지 금와 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어 사진에 담으며 경탄을 하였다.

3. 제 2 땅굴

고석정 그린힐 식당에서 중식을 마치고 13시부터 민통선 내 출입신고를 마친 뒤 14시부터 서울에서 106km 떨어진 철원 북방 13km 지점에 있는 제 2땅굴로 향했다. 북한 노동당사를 지나 4km지점 국군 제 8검문소(일명 양지리 통제소)를 지나 양지 마을을 끼고 토교(土橋) 저수지를 지나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땅굴로 향했다. 토교저수지는 철책선 안에 있는 강산저수지(일명 동송 저수지: 둘레 약 2km 넓이 약 25만평)의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철원 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76년 국군의 협조 아래 현대 건설이 건설하였으며 둘레는 약 16km 이고 저수 면적은 약 100만평이나 되는 큰 저수지라고 한다. 이 곳 저수지는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라 물고기가 너무 많아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전설이 있다. 저수지에 돌을 던지면 돌이 물고기 등에 얽혀 3일 밤낮이 지나도록 떠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 곳 제 2땅굴은 1973년 11월 20일 남방한계선 O.P에서 근무 중이던 초병이 지하에서 아주 작은 진동과 폭음을 감지하게 되어 국군의 청음활동을 강화하던 중 1974년 11월 15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고랑포에서 제 1땅굴이 발견됨에 따라 이곳에도 땅굴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추장비를 투입하여 우리 군과 현대 건설이 45개의 시추공을 뚫은 결과 7개가 땅굴을 관통하자 1975년 3월 1일부터 24일간 역 갱도를 뚫어 발견하게 되었다. 이 땅굴의 시작은 북방한계선이 있는 서방산 너머(남측에선 관측이 안 됨)에서 시작되어 휴전선까지는 2.4km,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1.1km를 파 내려와 총

3.5km나 된다. 지하 50~160m의 암석층을 높이 약 2m, 폭 상단부 2.1m, 하단부 2.2m의 아치형으로 제 1 땅굴보다 규모가 크고 소형야포, 소형탱크까지 통과할 수 있으며 출구는 3곳으로 되어 있어 1시간 당 약 3만 명의 병력이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땅굴 발견 후 수색 중에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지뢰가 폭발하여 아군병사 7명이 전사하였다. 역 갱도에는 78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땅굴 안에는 굴착 장비가 남쪽을 향하여 뚫은 장전공 표시와 흙을 실어 날랐던 궤도 교차 공간이 세 군데나 있으며 썬터와 휴식 공간도 설치되어 있다.

돌아오는 길에 철원 평야를 가로 지른 필승방벽(일명 5분 방벽)이 약 3km에 걸쳐 이어져 있어 적이 침공해 올 때 남쪽 국군이 전쟁준비를 위한 5분간 적의 탱크나 병력의 남침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함을 거쳐 월정리역에 도착하였다.



4. 철의 삼각지 월정리 역 전망대

1988년 11월 7일 남방한계선에 안보 관광용으로 건립한 22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4층 건물이다. 전망대 내부에는 휴전선 인근 모형도가 설치되어 있고,

휴전선 너머 오성산(1062m로 이 고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여 북한이 남한군 장교 계급장 한 트럭과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음), 김일성 수령이 직접 전투를 지휘했다는 김일성 고지, 산등허리가 낙타 등 같은 낙타고지, 말 등 위에 철 안장을 올려놓은 듯한 철마 고지 등이 시야에 보이며, 고성능 망원경으로 보면 평강고원과 북한의 선전 마을이 명확히 관측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격전지를 전쟁 당시 사망한 병사들의 피가 산 아래까지 흘러 내렸다 하여 피의 능선전투라 불렀다. 월정리 역사는 철원역과 평강역 사이에 있었으나 철책선(남방한계선) 안에 있어 들어갈 수 없기에 약 2km 남쪽 이 곳에 옮겨 복원하여 놓았다. 역사 철길에는 철책선 안에 있는 불에 탄 객차 2량을 옮겨 놓고 승강대에는 우리 민족이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의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있다. 이곳에서 평강역 19km, 서울 104km, 함흥 247km, 성진 478km, 부산 543km, 목포 525km, 청진 653km, 나진 731km 라는 이정표가 애처로이 서 있구나!

일행은 구 철원 시가지지를 지나 제 5 검문소를 나와 백마고지를 향하였다.



5. 백마고지 전투

백마고지는 철원읍 서북방 약 12km 철의 삼각지 좌견부에 위치한 군사 요충지로서 표고 395m 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군 제 9사단과 중공 제 38군 3개 사단의 병사들이 1952년 10월 6일부터 1952년 10월 15일 오전까지 10일간 수류탄과 육박전으로 밤이면 중국군이 점령하고, 낮이면 포격과 항공기 폭격으로 아군이 점령하기를 반복하면서 주인이 24번이나 뒤바뀌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격전지였다. 철원 평야 왼쪽의 작은 산이 피아 274,954 발 집중포화로 온 산이 벌집같이 파이고 나무와 풀이 모두 없어져 이 곳 백마고지 전승 기념탑에서 보면 하얀 말이 누워 있는 것 같이 보여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과 10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가 “저 고지는 무슨 고지입니까?” 하고 묻자, 부대 부연대장이 “White Horse Hill”이라고 대답하여 전 세계에서 백마고지 전투로 명명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8,234명, 아군 504명이 전사하였으며 부상자가 중공군 약 1만 명, 아군 약 3,500명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지구상에서 이처럼 처절한 전투가 또 있겠는가?



6. 아이스크림 고지

철원평야 중앙부 백마고지에서 약 6km 남쪽에 있는 표고 223m인 아주 작은 산이다. 전쟁 전에는 삼슬봉 또는 투구봉(군인들이 쓰는 철모 모양)이라 불렀는데 전쟁 중 집중포격으로 산 정상에 3m나 깎여 나갔으며 지금은 표고 220m이다. 미군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보니 여름철 콘 위에 초코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린 듯 보여 “ice cream hill”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철원평야를 둘러싼 각 고지 전투를 철의 삼각지 전투라 부르고 중공군 33,000명과 아군 11,000여 명이 사망한 세계 전투 사상 최다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전투였음을 알 수 있고 김일성이 철원평야를 빼앗기고 3일 밤 낮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일화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7. 승일교

일행은 태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철원읍 동남쪽에 있는 승일교 남단에 하차하였다.

한탄강 중류 저점에 높이 약 35m, 길이 120m, 폭 8m의 승일교는 1948년 해방 직후 북한 측이 군사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기초공사와 교각 절반을 시공 중 6.25남침 전쟁이 발발하여 아군과 유엔군이 이곳을 점령하여 나머지 절반을 완공하였다 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승(承, 이을 승)자와 김일성의 일(日, 날일)자를 붙여 승일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다리는 오래되고 안전이 확보 될 수 없어 약 15m 옆에 철교를 새로 놓아 사용하고 있으며 구 교량은 남북 분단의 역사적·민족적 의미가 깊은 한(恨) 많은 다리로 남아 있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

| 공짜가 없는 여행 |

경남지회 강수찬
(회원NO.347)

오랜만에 전국에서 서른 명의 회원들이 모여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한국 전력기술인 협회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산업시찰을 겸한 나들이다. 올해는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상해 전력소를 방문하면서 자연 명소인 장가계와 원가계를 이틀 동안 구경하기로 했다. 협회와 해외여행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꽤 오랜 일이다. 중국과는 국교 정상화가 되기 전인 1976년도 대만을 시작으로 여러 곳을 다녀와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당시에는 모든 경비가 본인 부담이라서 일행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협회에서 보조해 준다니 격세지감이다.

전국의 지회에서 천거한 처음 보는 얼굴이 대부분이었지만 전기 기술자격증이 고리가 되어 모두들 금방 형제가 된 느낌이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상해까지 한 시간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한 시간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이다. 현지 가이드는 교포 3세로서 북한과 인접한 연길이 고향이란다. 북한사람도 점차 개방이 되면서 상해에서 요식업을 하는 곳이 많아졌다. 여행일정 중에 마지막 밤은 평양관에서 냉면도 맛보고 홀 써빙을 하는 종업원과 농담하는 여유도 가졌다. 헤어질 부모 때문에 중국에 입양한 자식의 심정이라는 가이드의 처지가 애뜻하다. 잠시 동안 만났지만 정든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처음 가 보는 곳은 아니지만 주위가 개발되면서 애국선조들의 활동무대가 그대로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정이 가까워져야 도착한 장가계공항까지 국내선으로 2시간 정도 가는 먼 길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지방의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도 많아서 이곳까지 오는 하늘 길은 다양하다. 우리민족은 연(緣)으로 맺어 진 계(契)문화가 활성화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의 자연 경관을 보러 온다. 원가계는 장가계국립공원안에 절경의 봉우리들과 눈높이를 같이하여 가깝게 볼 수 있어 감탄사가 연발이다. 골짜기 절벽을 따라 걷는 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인력과 세월을 투자하였다. 바위 속을 뚫어서 설치한 승강기는 초당 3미터를 올라가는 고속이다. 승강기를 타고 오르며 눈앞에 보이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보고(寶庫)는 너무나 아름다워 혹시 조물주의 실수로 만든 하나의 거대한 작품 같았다.

한 해에 30만의 한국 관광객이 와서 눈요기를 하는 곳이라 국내 관광지로 착각하여 누군가는 “승강기가 오십대의 세월만큼 빠르다”고 소리치며 한바탕 웃었다. 자연을 보며 느끼는 신비감이 그만 인간에서 느끼는 허무감으로 바



- 2002년 계간 문학사랑으로 등단
- 한국 수필가 협회, 경남 문인 협회 회원
- 문화 전기사 대표
- 저서 : 산문집 “추억은 길을 멈추지 않는다”

꺼는 일이 벌어졌다. 쌀쌀한 날씨에 정신없이 걷다 보니 배도 출출하여 따뜻한 군밤이 생각날 즈음에 턱 벌어진 밤을 바구니에 먹음직스럽게 담아 팔고 있었다. “천원 ~천원!” 한국말로 유혹을 한다. 정말 싸다는 생각으로 돈을 건넸더니 옆에 있는 시커먼 비닐봉지를 주었다. 그 안에는 차갑고 상한 밤 몇 톨이 들어 있다. 가짜 천국이라는 중국의 한 단면을 보여 준 셈이다.

자연경관을 보면 기봉괴석을 구름위에 얹어놓고 운무 속을 움직이는 신선이 된 기분이지만 속고 속이는 인간 군상들이 남긴 상흔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이틀 동안 호수에서는 배를 타고, 하늘을 나르고 싶으면 승강기와 케이블 카에 몸을 싣는다. 동심의 세계로 떠나는 관광 식도도 타면서 즐거움과 아쉬움으로 짜여진 일정을 보냈다. 촉촉이 비가 내리고 어둠이 깔린 공항에서 다시 상해로 향하는 항공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부풀었다. 예약된 오후 10시를 한 시간이 지나서야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음울한 시골 버스 정류소와 같은 공항라운지에는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정을 넘기면서 항공기의 고장으로 이륙할 수 없다며 승객을 모두 호텔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이튿날 오후 7시에야 장가계를 출발하여 9시경에 상해에 도착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시간은 하늘을 날아 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꼬박 하루를 까먹은 대가로 항공사에서 인민폐 300위안을 받는 기분은 씁쓸하였다. 항공기가 연착한 이후의 일정은 모두 접고 다음 날 새벽에 귀국하기에도 바쁜 시간이라 잠마저 설치고 말았다. 여행경비의 절반으로 시작한 여행이라 관광도 반쯤하고 온 셈이 되었다. 비록 절반의 관광이지만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여행 나무”라는 여행사 이름에 걸맞게 대표자가 인솔하였다. 여행도 그렇지만 인생의 길에도 예기치 못한 일이 수없이 많다. 이렇게 수많은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옛날 중국의 어느 황제가 백성들에게 내려진 가장 짧으면서 쉽게 알려지도록 표현한 교시 문이란다.

| 내가 선택한 길 |

충남지회 신지호
(회원 NO.11694)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설계해야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한다. 하고 싶은일 곧, 직업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20대의 시간을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이윽고 30대, 40대의 나를 지탱케 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슨일을 하는가 즉,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과 때로는 됨됨이까지 파악하곤 한다. 직업은 단순히 일을 하여서 일을 통하여 돈을 번다는 목적 외에도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나는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행복은 나의 욕구가 충족 되었을 때 또한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 졌을 때 기쁨을 느낀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바둑이나 장기로 맞수를 꺾었을 경우에도 기쁨을 느낀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도 행복 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삶 전체에 대해서 한 인격이 깊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 자신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식할 때 인간으로서의 만족, 즉 행복을 느낀다, 나의 능력이나 기량 또는 신망 등이 그제보다 어제가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는 것을 의식할 때 나의 성장을 의식할 때 나는 삶 전체에 깊은 만족을 느낀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지 집단을 위해서 뭔가 뚜렷한 구실을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또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

또 나는 나와 교섭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인간으로서의 깊은 만족을 경험한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여서 여러 사람들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섭을 갖게 마련인데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질서와 번영에도 직결되고 개개인의 행복행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적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은 생업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직업을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라고만 여기는 경제주의적 직업관을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업이란 단순히 생계를 위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회사에서는 'grow or out' 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동된다. 입사하면 2-3년은 프로젝트의 팀원으로만 활동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리더로 탈바꿈 해야하고 그다음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야 한다.

現代社會는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서 그 특징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문가는 국가에 의해서 그 자격이 부여되고 법에 의해 권한이 보호되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專門家는 자기의견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매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전문활동을 하게되고 처리하는 일이 정상적인일이 아니고 부정규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 처리를 하는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보수는 일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연히 매력을 풍겨주는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직업인으로 사회에 군림하게된다. 그러나 전문가는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받고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전문가만이 지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는 사명의 완수에 따른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는 사명의 완수에 따른 代價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가가 받는 보수와 사명은 상관관계가 있다 .

그러나 사회가 黃金萬能中心이 되어가는 마당에서는 전문가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사명보다 보수에 먼저 눈을 돌리는 현사회조류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한 전문가로서 명성을 떨치려고 한다면 사명의 완수에 제일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1일은 전문가의 길을 선택한지 30년, 電力技術人으로 내가 이 길을 선택하여 오직 한 길을 전력기술인이라 전문가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제2회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을 보낸 소중한 기념일로 기억 되리라.

| 부용천 짹짹이 |

경기북지회 조동묵
(회원 NO. 96423)

경계심이 강한 천둥오리
무리 중에 대장도 있고
누가 접근하면 소리 없이 무리를 떠나
사주경계가 용이한 곳으로 재빠르게 이동하는
그 중에 한, 둘은 젊은 경계병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늘 걷는 이길, 부용천 산책로
겨울바람 차가운 어느 날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와 산책에 나섰다
나는 대장, 아내는 경계병,
우리도 앞뒤로 대형을 짜
좌우를 살피며 가슴을 내밀고 걷는다. 오리처럼...
새 소리 들으며, 검불 숲을 바라보다...

이 겨울에
우리에게 즐거운 버릇이 생겼는데
천둥오리 숫자 세기... 왜가리도 참새도
부용천 어디에, 왜 잘 모이는지도 잘 알아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단지 그들이 불편해 할까봐
배려차원에서
결눈질로 대충 때우는 앞만 보고 힘차게 걸어

그냥 막 지나치려는 찰라
뒤통수에 대고 짹 짹 짹 짹...
(아니 왜 오늘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시나?
서운하게 시리)
순간 뒤따라오던 아내가 획 돌아서며
더 높은 톤으로 짹 짹 짹 짹...
(조용히 해! 남의 속도 모르고...)

한 무리 천둥오리 떼가 우릴 바라보고 있다.
긴 목을 높이 빼들고 쏘아보던
대장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분들이 우리말을 알아들으시나보네
근데 왜 사투리?
한동안을 짹짹이어로 뭐라 계속 꾸짖던 아내를
우리 측 대상이 등 떠밀어 간신이 말려 돌아왔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복장으로 그곳에 가
아내는 군대처럼 점호를 취했으나
그들은 그들 대장의 호의적? 지시로 날아가지 않았다.

*호의적지시(언어소통가능외계인이러니 했거나 짹짹
이 동호인쯤으로 치부)